

#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강 문 식\*

1. 머리말
2. 정조의 朱子學 연구
  - 1) 조선의 朱子學 연구 전통에 대한 이해
  - 2) 朱熹 저술 연구와 選本 편찬
3. 『朱書百選』의 편찬
  - 1) 『朱書百選』의 편찬과 간행
  - 2) 정조의 『朱書百選』 연구와 활용
  - 3) 『朱書百選』 내용의 특징
4. 맺음말

## 1. 머리말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 학자들의 주자성리학 이해 과정을 보면 중요한 특징적 흐름이 발견된다. 그것은 朱熹의 저술을 재편집하거나 주석한 일련의 연구서들이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서의 편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朱子大全』·『朱子語類』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정리한 選本の 편찬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구절을 뽑아 해설한 주석서의 편찬이다.

먼저 朱熹 저술의 선본으로는 1557년(명종 12) 奇大升이 『朱子大全』의 글 중에서 129편을 선별·축약하여 『朱子文錄』을 편찬·간행했고, 이어 1558년에는 李滉이 『朱子大全』에 수록된 서간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정리한 『朱子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節要』를 편찬하였다.<sup>1)</sup> 이후 鄭經世가 『朱子大全』의 서간 이외의 글에서 긴요한 것을 선별·정리한 『朱文酌海』, 趙翼이 『朱子書節要』를 재편집한 『朱書要類』, 朴世采가 『朱子大全』에 누락된 遺文들을 모아 편집한 『朱子大全拾遺』, 宋時烈이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통합하고 누락된 글을 보완하여 편집한 『節酌通編』, 李象靖이 『朱子語類』에서 중요 내용을 선별·정리한 『朱子語節要』, 柳致明이 『朱子書節要』를 재편집한 『朱節彙要』 등이 편찬되었다.

다음으로 주석서 편찬을 보면, 『朱子書節要』의 주석서인 『朱子書節要記疑』와 『朱子書節要講錄』이 출현했고, 李栽·李象靖 등이 다시 『朱子書節要講錄』을 보완한 『朱書講錄刊補』를 편찬했다. 한편 宋時烈은 『朱子大全』 전체를 주석한 『朱子大全筭疑』를 편찬했으며, 이후 『朱子大全筭疑』를 보완하는 저술로 金昌協·魚有鳳의 『朱子大全筭疑問目』, 李宜哲의 『朱子大全筭疑後語』, 金敏材의 『朱子大全筭疑補』, 金邁淳의 『朱子大全筭疑問目標補』, 李恒老·李竣 부자의 『朱子大全筭疑輯補』 등이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sup>2)</sup>

이상과 같은 조선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와 편찬의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정조이다. 정조는 일찍부터 주희 저술 학습에 몰두하면서 이전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수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朱子大全』과 『朱子語類』 전체로 연구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정조는 주희 저술을 대상으로 여러 종의 선본들을 편찬했으며, 또 비록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주희의 모든 저술들과 그에 대한 주석들을 망라한 ‘朱子全書’ 편찬을 구상하기도 했다. 정조의 주자학 연구는 당시까지 진행된 조선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수용하고 집대성하여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朱書百選』이다.

『주서백선』은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주서백선』은 정조

1) 기존에는 이황의 『朱子書節要』를 『주자대전』 선본의 효시로 보았으나, 근래 이동희의 연구를 통해 奇大升의 『朱子文錄』이 『朱子書節要』보다 먼저 편찬·간행됐음이 확인되었다. 『주자문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2009 『高峯 奇大升의 『朱子文錄』 編纂과 당시 그의 思想의 一斷面』, 『유교사상문화연구』 36 참조.

2) 李俸珪, 1996 『宋時烈의 性理學說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38면.

의 주자학 저술 중 유일하게 정조 당시에 간행되어 전국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조가 다른 주자학 저술과는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서백선』을 편찬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서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주서백선』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정조가 조선의 주자학 연구 전통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어 3장에서는 『주서백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 편찬·간행됐으며, 정조가 『주서백선』을 통해 문신 및 유생들에게 강조하려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 정조의 朱子學 연구

### 1) 조선의 朱子學 연구 전통에 대한 이해

정조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주자대전』·『주자어류』 등 주희 저술에 대한 학습에 매진하였다. 그 스스로 “六經 외에는 주자의 책을 가장 즐겨 읽었다.”<sup>3)</sup>거나 “내 평생의 학문은 한 부의 朱書에 있다.”<sup>4)</sup>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그가 주희 저술 학습에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정조는 주자학 이해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 전통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머리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 이전 조선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는 『주자대전』·『주자어류』 등의 중요 내용을 선별·정리하는 選本 편찬과 어려운 단어나 구절을 해설하는 주석서 편찬 등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조도 선본과 주석서라는 두 측면에서 이전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고 평가하였다.

먼저 『주자대전』 선본 편찬에 대한 정조의 이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조

3) 『일성록』 정조 21년(1797) 5월 22일.

4)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1798) 4월 19일.

는 조선에서 편찬된 『주자대전』 선본 중에서 이황의 『주자서절요』, 정경세의 『주문작해』, 송시열의 『절작통편』을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인식하였다.

『주자서절요』는 정조가 召對의 교재로 여러 차례 읽었던 책이다. 그는 세손 시절에 『주자서절요』를 3~4차례 강독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sup>5)</sup> 실제 그는 『주자서절요』 전체를 암기하는 수준으로 숙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sup> 정조는 “실로 처음 朱子書를 표장한 이는 李文純[이황]이니, 『주자서절요』를 보면 그가 참으로 이른바 朱門의 충신임을 알 수 있다.”<sup>7)</sup>라고 하여 『주자서절요』를 주희 저술 연구의 효시로서 높이 평가하였다. 또 정조는 『주자서절요』의 주해서인 『朱子書節要講錄』과 『朱書講錄刊補』에 대해서도 “『강록』과 『간보』 등을 나 역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朱書를 羽翼하고 그 뜻을 발명함에 아름다운 은혜가 실로 많다”<sup>8)</sup>라고 하였다. 또 정조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주자서절요강록』의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황이 직접 지었는지 아닌지를 변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sup>9)</sup> 이와 같은 언급들은 정조가 『朱子書節要講錄』·『朱書講錄刊補』의 내용과 가치, 논란이 됐던 문제 등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조는 “지금의 학자들은 諸子를 두루 섭렵하려 할 필요가 없다. 『陸宣公奏議』와 『朱子書節要』 두 책만 익숙히 읽어서 得力한다면 문장을 지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해낼 수도 있다.”<sup>10)</sup>라고 하였다. 이는 정조가 『주자서절요』를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필독서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또 정조는 『陸奏約選』과 『奏議纂要』

5) 『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8월 30일.

6) 『일득록』에 실린 徐有防의 1788년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내린 傳敎에 주희의 글을 인용한 구절이 있었는데, 筵臣이 “이 구절은 『주자서절요』에 나오는 것 같으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조가 近侍에게 하교하여 “『주자서절요』 몇 편, 몇 板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찾아온 것을 보니 정조의 말이 맞았다고 한다(『홍재전서』 권162, 『日得錄』 2, 文學 2).

7) 『홍재전서』 권131, 『故寔』 3, 朱子大全 2, “實始表章朱子書者 李文純也. 觀於節要 眞所謂朱門之忠臣.”

8) 『홍재전서』 권130, 『故寔』 2, 朱子大全 1, “講錄刊補等書 予亦嘗屢度繙閱矣 羽翼發明 實多嘉惠.”

9) 『홍재전서』 권131, 『故寔』 3, 朱子大全 2, “溪門講錄之手著與否 今何足辨釋.”

10) 『홍재전서』 권163, 『日得錄』 3, 文學 3, “今之學者 不必泛博於諸子 只取陸宣公奏議朱書節要二書 熟讀得力 可以爲文章 可以做事業.”

를 편찬할 때 『주자서절요』의 체재를 적용하였고,<sup>11)</sup> 『주서백선』을 편집할 때도 『주자서절요』를 대본으로 삼는 등<sup>12)</sup> 자신의 저술에도 『주자서절요』를 적극 활용하였다.

정경세의 『주문작해』에 대한 정조의 언급은 『주자서절요』나 『절작통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정조는 정경세의 遺稿를 읽은 후 그를 위한 제문을 지은 바 있는데,<sup>13)</sup> 그 제문의 첫머리에서,

내가 주자서를 좋아하여	予好朱書
회통하고 주제를 나누어 편집하였다	會通彙分
朱文酌海에서 보건대	觀於酌海
경의 식견을 알 수 있다	得卿所存

라고 하여 정경세의 평생 업적 중에서 『주문작해』의 편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어 정조는 같은 제문에서 정경세가 “退溪를 사숙하고 朱子에게 충성했다(淑諸退陶 忠於紫陽)”라고 했는데, 이는 정조가 『주문작해』를 이황의 연구를 계승했으며 주자학의 보급과 진흥에 기여한 저술로 평가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제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경에게 잔을 드리니 내가 주자서를 좋아하네(有酌于卿 予好朱書)”라고 하여 다시 한 번 『주문작해』를 편찬한 정경세의 공로를 강조하였다.

송시열의 『절작통편』은 정조가 기존의 주희 저술 선본 중에서 가장 중시했던 책이지만, 정조대 경연에서의 진강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절작통편』 進講 논의는 1779년(정조 3)부터 나타났는데, 이해 8월에 宋德相이 召對의 진강 교재로 『절작통편』을 건의한 바 있으며,<sup>14)</sup> 같은 해 11월에도 洪樂純이 다시 한 번

11) 『홍재전서』 권165, 『日得錄』 5, 文學 5; 권181, 『群書標記』 3, 御定 3, 陸奏約選; 권183, 『群書標記』 5, 命撰 1, 奏議纂要.

12)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1월 11일.

13) 『홍재전서』 권24, 祭文 6, 『文莊公鄭經世致祭文』.

14) 『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8월 30일; 9월 1일; 10월 5일. 1779년(정조 3) 8월 정조는 召對의 진강 교재를 정하기 위해 儒賢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宋德相이 ‘朱書節酌’을 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조는 ‘주서절작’은 이전에 강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조의 지시를 받은 홍문관에서는 서책 명부에

『절작통편』의 소대 진강을 건의했다.<sup>15)</sup>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 대신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절작통편』 진강이 시행되지는 못했다.<sup>16)</sup> 연대기에서 정조의 『절작통편』 진강이 확인되는 것은 1787년(정조 11)으로, 이 해 8월 20일에 정조는 『절작통편』을 소대의 진강 책자로 확정하고 영남감영에 보관되어 있던 『절작통편』 책판과 예안에 있던 『주자서절요』 책판을 이용하여 각각 3건과 2건을 인출해서 올리도록 지시하였다.<sup>17)</sup>

정조는 『절작통편』을 기존의 주희 저술 선본 중 가장 좋은 책으로 평가하였다.

『朱書節要』는 先正 文純公 李滉이 편찬한 것이고, 『朱文酌海』는 故 副提學 鄭經世가 편찬한 것이다. 『주서절요』와 『주문작해』를 한 책으로 편찬하여 『節酌通編』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先正 文正公 宋時烈이 편찬한 것이다. 『주서절요』는 언어만 취하였고 『주문작해』는 문자만 취했는데, 『절작통편』은 문자와 언어를 같이 싣고 있으니 이 책이 보기에 가장 좋다.<sup>18)</sup>

위 글에서 ‘언어만 취했다’는 것은 『주자대전』의 서간문에서 중요 내용을 선별

‘주서절작’이라는 책이 없다고 보고했고, 이에 정조는 송덕상에게 다시 확인하도록 명했다[『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9월 1일]. 이에 송덕상은 ‘주서절작’은 『절작통편』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10월 5일]. 이 사건은 단순한 서명 실수로 보이지만, 정조가 ‘주서절작’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절작통편』을 잘못 말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의문이다. 정조가 일찍부터 주희 저술 및 그에 관한 조선 학자들의 연구서를 폭넓게 학습했던 것과 영조대에 『절작통편』이 여러 차례 소대에서 진강됐음을 고려하면, ‘節酌’이라는 이름에서 ‘주서절작’이 『절작통편』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조는 1782년 12월 송덕상이 홍역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을 때 3년 전 그가 ‘주서절작’ 진강을 건의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나에게 ‘주서절작’ 읽기를 권했는데 세상에 이런 책명이 있는가? 이로써 미루어 보면 그의 불학무식함을 여기서 알 수 있다(朱子節酌 向予勸讀 世亦有此等册名乎 以此推之 其不學無識 於此可見矣.)”라며 비난하였다[『일성록』 정조 6년(1782) 12월 9일].

15) 『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11월 8일.

16) 『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11월 9일.

17) 『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8월 20일.

18) 『홍재전서』 권161, 『日得錄』 1, 文學 1, “朱書節要 卽先正文純公李滉所編 而朱子酌海 故副提學鄭經世所編也. 以節要酌海合編一書 名之曰節酌通編 此先正文正公宋時烈所編. 節要只取言語 酌海只取文字 惟通編一書 俱載文字言語 此書最好看.”

했다는 뜻이고, ‘문자만 취했다’는 것은 서간 이외의 산문에서 중요 내용을 뽑았다는 의미이다. 즉, 정조는 『주자서절요』와 『주문작해』의 특징을 각각 서간문과 산문의 선본으로 설명한 다음, 『절작통편』은 두 책의 장점을 모두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선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자대전』 주석서에 대한 정조의 이해를 검토해 보겠다. 정조 이전에 편찬된 『주자대전』 주석서 중에서 정조가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이황의 『朱子書節要記疑』(이하 『기의』)와 송시열의 『朱子大全筭疑』(이하 『차의』)였다. 정조는 『기의』와 『차의』를 ‘초학자의 길잡이가 되는 책’이라고 인정했으며,<sup>19)</sup> 특히 『차의』에 대해서는 ‘미로의 나침반’으로 비유하면서 학자들에게 주자학 학습의 길을 열어준 공이 전적으로 송시열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sup>20)</sup>

한편 정조는 세손 시절에 『차의』의 발문을 지은 바가 있는데, 이 글에서 『기의』와 『차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先正 文正公 宋時烈은 불세출의 大儒로서 일찍부터 聖賢의 학문에 종사하였고 주자의 글에 대해서는 힘쓴 것이 더욱 컸으며, 유배지에 있을 때 날마다 『주자대전』을 일과로 외워서 70여 권을 다 외웠다. 또 일찍이 先正 李文純公[이황]이 편집한 『朱書記疑』의 글을 인하여 그 得失을 고증하고 다시 이리저리 찾아내어 세밀하게 분석해서 마침내 책을 완성하고 『筭疑』라 명명하였다.<sup>21)</sup>

위 글에서 정조는 『차의』를 『기의』의 기반 위에서 출발한 작업으로 이해했다. 즉, 내용적인 면에서 수정·보완이 있기는 했지만, 『차의』가 『기의』를 계승·발전시킨 저술이라는 것이 정조의 판단이었다.

이처럼 정조는 『기의』와 『차의』를 『주자대전』 주석의 핵심으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본인의 『주자대전』 학습에서도 이 책들을 적극 참고하였다. 정조는 세손 시절 『주자대전』을 공부하던 중 『기의』와 『차의』가 따로 있어 참고하기에

19) 『일성록』 정조 21년(1797) 5월 22일.

20) 『홍재전서』 권164, 『日得錄』 4, 文學 4.

21) 『홍재전서』 권4, 春邸錄, 『朱子大全筭疑跋』, “先正宋文正公時烈 以不世出之大儒 早從事於聖賢之學 其於朱子之書 得力爲尤大 方其在謫也 日取大全課誦之 以盡七十餘卷. 又嘗因先正李文純公所編記疑書 而證其得失 復旁搜窮剔 毫分縷析 以成完書 而名之曰筭疑.”

불편하다고 느꼈다. 이에 그는 공료들에게 명하여 『기의』와 『차의』의 내용을 조목별로 초록해서 『주자대전』 책자의 상단 여백에 옮겨 적게 했으며, 또 붉은 먹으로 구두를 찍어서 열람에 편리하도록 하였다.<sup>22)</sup> 이는 정조가 『주자대전』을 강독할 때 『기의』와 『차의』를 참고 주석으로 적극 활용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조는 『차의』 이후 노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편찬된 후속 저술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大全筭疑』는 선정 송시열이 귀양살이 중에 『綱目』에서 베껴 낸 것이다. (……) 그 뒤에 故 판서 金昌協, 故 참판 李宜哲의 『筭疑』는 대체로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모두 볼 만하고, 故 桂坊 金敏材는 桂坊에 있을 적에 세 『차의』에 없는 것들을 모아 편찬하여 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 볼 만한 것이 많다.<sup>23)</sup>

위 인용문을 보면, 정조는 송시열의 『차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편찬된 김창협 의 『朱子大全筭疑問目』, 이의철의 『朱子大全筭疑後語』, 김민재의 『朱子大全筭疑補』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볼 만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창협 등의 저술에 대한 정조의 가치 평가는 그가 이 책들의 내용을 ‘朱子全書’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조는 궁극적으로 주희의 모든 저술들을 망라하여 ‘주자전서’를 편찬하고자 했었는데,<sup>24)</sup> 이때 『기의』와 『차의』, 그리고 김창협·이의철 등의 저술까지 모두 수록하여 ‘全釋’을 갖추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sup>25)</sup> 이는 정조가 이 책들의 내용을 자신의 ‘주자전서’에 포함시켜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조선의 주자학 연구의 전통에 관한 정조의 이해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조는 이황과 송시열의 저술들을 조선 주자학 연구의 핵심으로 파악했으며, 그 외 다른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22) 『일성록』 정조 21년(1797) 5월 22일.

23) 『홍재전서』 권161, 『日得錄』 1, 文學 1, “大全筭疑 先正宋時烈謫中 飜贍於綱目者也. (중략) 其後又有故判書金昌協·故參判李宜哲筭疑 大體各有長短而俱可觀 故桂坊金敏材在桂坊時 以三本筭疑所無之說 撰成一本 此亦多可觀矣.”

24)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17-239면.

25) 『일성록』 정조 21년(1797) 6월 4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 정조는 자신이 구상한 ‘주자전서’ 편찬에 조선 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정조가 조선의 주자학 연구 수준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조의 주자학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選本 형태로 정리됐는데, 이는 정조가 조선 주자학의 선본 편찬 전통을 자신의 연구에서 중요한 전범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朱熹 저술 연구와 選本 편찬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주희 저술 연구에 전념했으며, 20대 초반부터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저술로 남기기 시작했다. 정조의 주자학 저술은 대부분 『주자대전』에서 중요 내용들을 초록한 選本으로, 이는 이전 학자들의 연구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고, 또 궁극적 목표인 ‘朱子全書’ 편찬을 위한 선행 연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주희 저술 연구 이력에 대해 몇 차례 설명한 바가 있고, 또 『群書標記』에는 그가 편찬한 주희 저술 선본들의 개략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저술의 편찬 시기나 세부적인 표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조의 주희 저술 연구와 편찬에 관한 연대기 기록과 『군서표기』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의 연구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조는 1797년(정조 21) 5월 李述源에게 通政大夫의 자급을 내리는 교지에서 자신의 주희 저술 연구가 16세 때인 1767년(영조 43)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지나간 정해년(1767) 사이에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桂坊의 몇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 章句를 정하고 의심스런 뜻을 해석하며 그 諺讀를 기록하게 했는데, 수년이 지나서야 모두 마쳤다. 그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이는 李灌·韓用和·朴師亨·李謙鎭·沈定鎭·安鼎福·任靖周 등 여러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李述源]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sup>26)</sup>

위 인용문에 따르면 정조는 16세 때 翊衛司 관원들과 함께 『주자대전』과 『주

26)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1797) 5월 3일.

자어류』를 연구했는데, ‘수년이 지나서야 모두 마쳤다’고 한 것을 볼 때 정조의 20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조는 이보다 1년 후인 1798년 4월에 筵臣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20대 때에 『朱書會選』을 편집하고 또 春坊·桂坊과 협력하여 註解를 抄定했으며 『주자어류』에 구두점을 찍었다고 하였다.<sup>27)</sup> 1767년의 작업이 20대까지 계속되었고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연구 대상으로 했으며 계방의 관원들이 협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조의 두 언설은 동일한 연구를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조가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진행한 『주자대전』·『주자어류』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위에서 살펴본 기사에는 “章句를 정하고 의심스런 뜻을 해석하며 그 諺讀를 기록했다”, “註解를 抄定했다”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 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정조는 세손 시절에 『주자대전』을 학습할 때 주석 참고의 편의를 위해 宮僚들에게 『기의』와 『차의』의 내용을 『주자대전』의 상단 여백에 등서하고 구두점을 찍도록 한 바가 있다.<sup>28)</sup> 궁료들과 함께 『주자대전』의 주석을 등서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위에서 본 정조의 언설과 연결되는 바가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의심스런 뜻을 해석했다”거나 “註解를 抄定했다”는 말은 『기의』와 『차의』의 주석을 『주자대전』에 등서한 작업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767년에 시작된 정조의 『주자대전』·『주자어류』 연구는 그가 일생동안 진행한 주자학 연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조는 위에서 본 1797년 5월의 하교에서 갑오년(1774)에 『주자서절요』를 교정할 때 정해년(1767)에 정한 『주자대전』을 참고했으며, 또 근래 간행한 『御定朱書百選』을 證錄할 때도 30년 전 編勘한 『주자대전』을 이용했다고 하였다.<sup>29)</sup> 이는 1767년 이후 몇 년간 진행된 『주자대전』·『주자어류』 연구 성과의 바탕 위에서 이후의 주희 저술 연구와 선본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1767년의 『주자대전』·『주자어류』 연구는 정조의 주자학 연구 전체의 기본 토대가 되었으며,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7)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1798) 4월 19일.

28) 『일성록』 정조 21년(1797) 5월 22일.

29)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1797) 5월 3일.

10대 중반~20대 초반에 『주자대전』·『주자어류』 연구로 기초를 쌓은 정조는 1774~1775년에 『주자서절요』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정조의 슬회에 따르면 그는 1774년에 趙明鼎·李義駿 등과 함께 1767년의 『주자대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주자서절요』를 考校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sup>30)</sup> 그리고 「군서표기」에는 1774년에 편찬된 명찬서로 『朱子會選』이 실려 있는데, 이 책의 권9~26 부분이 『주자서절요』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sup>31)</sup> 이 두 기사에서 연구 및 편찬의 시기(1774년)와 대상 도서(『주자서절요』)가 일치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조가 조명정 등과 함께 『주자서절요』를 考校한 결과가 『주자회선』 편찬으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정조는 1775년에도 『주자서절요』를 읽었으며, 그 정수를 뽑아 『紫陽子會英』을 편집하였다.<sup>32)</sup> 그런데 정조는 1798년 4월의 筵臣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30대 때에 『자양자회영』을 편집했다고 말하여,<sup>33)</sup> 「군서표기」에 기록된 편찬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서표기」의 기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을미년(1775, 영조 51)에 『朱子節要』를 읽었는데, 한 편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수십 번씩 읽었고,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앞에서 끝까지 실마리를 찾아가며 한 책씩 마쳤다. 진질을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다시 그 정수만을 뽑아서 3책으로 만들었다. 그 후 故 牧使 韓億增의 鈔本을 보았는데 모두 나의 마음과 같았다. 이에 앞서 내가 구성했던 것을 버리고 한역증 초본의 體例를 택하였다. (……) 또 各體의 詩文을 뽑아서 그 뒤에 붙이고, 합하여 『紫陽子會英』이라 명명하였다.<sup>34)</sup>

30) 『정조실록』 정조 21년(1797) 5월 3일.

31) 『홍재전서』 권183, 「群書標記」 5, 命撰 1, 朱子會選. 『朱子會選』은 ‘주희 저술의 選本들을 모두 모았다.’는 의미로,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정경세의 『주문작해』를 『주자대전』의 편차에 맞게 재정리하고 여기에 두 책에 빠져 있는 주희의 글을 추가로 부록하여 만든 책이다. 한편, 정조는 1798년 4월 9일에 筵臣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정조는 20대에 『朱書會選』을 편집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朱子會選』을 잘못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1798) 4월 19일].

32) 『홍재전서』 권179, 「群書標記」 1, 御定 1, 紫陽子會英.

33)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1798) 4월 19일.

34) 『홍재전서』 권179, 「群書標記」 1, 御定 1, 紫陽子會英. “予於乙未 讀朱子節要 每讀必幾十遍 每訖一卷 必首尾細釋 以竟一帙 既竟帙 又手鈔之爲三冊. 後見故牧使韓億增所鈔 罔然會

위 글을 보면 『자양자회영』의 편찬은 1775년에 정조가 『주자서절요』의 정수를 선별·정리한 단계와 고 한역증의 초본을 보고 그 체례를 따라 수정한 후 各體의 시문을 부록한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군서표기」에 기록된 편찬 연대(1775년)는 정조가 『주자서절요』를 초록하여 『자양자회영』의 초고를 편찬한 시기이고, 1798년에 정조가 언급한 ‘30대 때의 편집’은 고 한역증의 초본 체례를 따라 책의 내용을 개편하고 여러 문체의 시문을 뽑아서 부록한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양자회영』은 1775년에 처음 편집된 이후 최종 완성까지 상당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20대 시절에 기존의 주희 저술 선본들을 다시 정리·초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정조의 선본 편찬은 30대로 접어들면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중요 내용을 선별·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존 선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면서 『주자대전』·『주자어류』 등 거질의 저작 전체를 직접 소화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확립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 편찬된 선본들이 바로 『朱子選統』·『朱子書節約』·『朱文手圈』 등이다.

『朱子選統』은 정조가 30대에 편찬한 저술로 언급한 바 있으며,<sup>36)</sup> 「군서표기」에도 정조가 30세 때인 1781년에 편찬된 어정서로 기록되어 있다. 「군서표기」에 따르면 정조는 1774년에 여러 달에 걸쳐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읽었는데, 책 수가 너무 많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정조는 항상 읽을 수 있는 축약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781년에 『주자대전』·『주자어류』에서 중요한 내용을 직접 선별한 다음 항목별로 분류·정리하여 이 책을

心 捨宿構 取韓例 (중략) 又以詩文各體 鈔附其下 總名之曰紫陽子會英.”

35) 1798년 4월 연신들과의 대화에서 정조는 “又証定故儒臣韓億增所編朱書 又編紫陽會英及朱書各體”라고 하여, 한역증의 朱書를 証定한 것과 『자양회영』·『주서각체』의 편찬이 별개의 일이고 『자양회영』과 『주서각체』가 서로 다른 책인 것처럼 말하였다[『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1798) 4월 19일]. 이에 따라 이 기사가 수록된 『정조실록』과 『일성록』의 국역본에서도 한역증의 朱書를 証定한 것, 『자양회영』 편집, 『주서각체』 편집의 결과물들이 각각 다른 것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군서표기」의 기록을 통해 이 세 가지가 별개의 연구가 아니라 『자양자회영』이라는 하나의 선본을 편찬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으며, 『주서각체』 또한 별도의 저술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36)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1798) 4월 19일.

편찬하였다.<sup>37)</sup>

『朱子書節約』은 「군서표기」에 1800년에 편찬된 御定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앞서 본 『주자회선』·『자양자회영』과는 달리 최종 완성 시기를 표기하였다. 「군서표기」에 따르면 이 책은 정조가 주희의 저술을 읽으면서 圈點과 批點을 치고 초록하여 정리한 여러 책 중 하나로, 1774년에 처음 편찬을 시작했고 1797년에 重編했으며, 다시 1798년에 徐有渠에게 수정하도록 해서 여러 해 후에 완성했다고 한다.<sup>38)</sup> 『정조실록』·『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에는 정조가 1797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주자전서』와 『주자대전』·『주자어류』에서 중요한 句語를 뽑아 節約하여 『주자서절약』을 편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sup>39)</sup> 이는 이 책의 重編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은 『주자대전』·『주자어류』에서 중요 구절들을 뽑아 항목별로 분류·정리했다는 점에서 『朱子選統』과 유사한 체제를 갖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朱文手圈』은 『五子手圈』의 한 부분으로, 정조가 ‘朱子全書’ 편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선본들과 차이가 있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정조의 「親撰示校正諸學士」에 따르면, 그는 여러 종의 주희 저술 선본들을 편찬한 다음 『주자대전』·『주자어류』 등 주희의 모든 저술을 수집하여 ‘大一統의 文字’를 만들 계획을 세웠고 그 첫 단계로 『주자대전』에 직접 권점을 찍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주문수권』이다.<sup>40)</sup>

이상에서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진행한 주자학 연구 및 선본 편찬 추이를 정리해 보았다. 정조는 주자학 연구는 10대 중반이었던 1767년부터 시작된 『주자대전』·『주자어류』 학습에서 그 토대가 구축되었고, 이후 정조가 편찬한 여러 종의 주희 저술 선본들은 바로 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절에서 검토한 선본들은 모두 정조 개인의 주자학 연구에 참고하기

37) 『홍재전서』 권179, 「群書標記」 1, 御定 1, 朱子選統.

38) 『홍재전서』 권182, 「群書標記」 4, 御定 4, 朱子書節約.

39)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1798) 4월 19일.

40) 『홍재전서』 권181, 「群書標記」 3, 御定 3, 五子手圈. 정조는 『주문수권』을 편찬한 후 다시 周敦頤·張載·鄭顥·程頤의 저술에도 권점 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주문수권』과 함께 엮어서 『五子手圈』으로 정리하였다.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남았다. 반면, 1794년에 편찬된 『주서백선』은 간행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이는 『주서백선』이 정조의 다른 주희 저술 선본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책임을 보여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주서백선』의 편찬·간행 및 활용의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주서백선』 편찬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3. 『朱書百選』의 편찬

#### 1) 『朱書百選』의 편찬과 간행

『주서백선』은 정조가 주희의 서간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 100편을 선별하여 편집한 선본으로, 1794년 12월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정조는 『군서표기』에서 “주희의 성대한 학문은 문집에 실려 있고 정밀한 문장은 書牘에 있다.”<sup>41)</sup>라고 하여 주희의 서간문이 갖는 학문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주자서절요』를 편찬한 이황의 주자학 이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가 『주서백선』을 편찬할 때 『주자서절요』를 대본으로 삼은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조의 주희 저술 선본들이 대부분 필사본으로 남았던 것과는 달리 『주서백선』은 활자로 간행되고 번각본이 제작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이는 정조가 『주서백선』을 편찬한 목적이 다른 선본들과는 달랐음을 보여준다.

『주서백선』, 『陸奏約選』, 『史記英選』, 『八子百選』을 전후로 선정하여 인쇄한 것에 대한 깊은 뜻이 있다. 지금 사람들은 근력이 옛사람만 못하여 全帙의 책은 매번 손을 대어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篇帙을 간략하게 하여 誦讀하기 편하도록 했으니, 진심을 다해 오랫동안 노력한다면 경박한 풍조를 되돌려 순후함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sup>42)</sup>

41) 『홍재전서』 권180, 『群書標記』 2, 御定 2, 朱書百選.

42) 『일성록』 정조 21년(1797) 6월 24일, “朱書·陸奏·史記·八子之前後選印 亦有深意存焉 今人筋力不如古人 全帙之書 每難着工 故簡其篇帙 俾便誦讀 庶幾有真積力久 反瀉回淳之效”

위 인용문은 정조가 1797년 6월에 우의정 李秉模에게 자신이 여러 종의 선집을 편찬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정조는 당시 학자들이 『주자대전』을 비롯한 전질의 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선집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학자들의 학습과 송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일득록』에는 당시 정조가 “편질을 간략히 하고 과정을 요약함으로써 물길을 따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란 것”<sup>43)</sup>이라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학자들이 선집을 통해 학문적 축적을 이룬 후에는 쏠쑈로 학습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정조의 선집 편찬에는 학자들에게 학문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조는 학자들의 학습을 독려하고 학문을 진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선집을 편찬·간행했던 것인데, 주자학에서는 『주서백선』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책이었다. 즉, 다른 선본들이 정조 자신의 주자학 연구에 참고하거나 ‘주자전서’ 편찬의 사전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면, 『주서백선』은 학자들에게 주희 저술의 핵심 내용을 보급하고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간행이 추진됐다고 할 수 있다.

『주서백선』은 크게 보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진행한 주희 저술 연구의 기반 위에서 편찬된 것이지만, 직접적인 편찬은 1794년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책의 편찬에서 정조를 보좌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는 韓晩裕(1746~1812)였다.

한만유가 『주서백선』 편찬의 핵심 담당자로 발탁된 것은 정조가 그의 『주자대전』 학습과 抄錄의 경험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1794년 5월 9일에 승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만유에게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한만유가 四書와 朱書, 즉 『주자대전』을 읽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정조는 『주자대전』을 초록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한만유는 居敬과 窮理에 관한 내용을 초록하여 한 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정조는 『주자대전』을 읽는 이가 많지 않은데 한만유가 이 책을 읽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며 치하하였다.<sup>44)</sup> 이날

43) 『홍재전서』 권164, 『일득록』 4, 문학 4, 原任直提學臣李秉模丁巳錄, “冀或簡其編而約於課沿流而泝源也.”

의 대화는 정조가 한만유를 눈여겨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1794년 7월 5일에 정조는 자신이 『주자대전』의 주요 내용을 초록한 抄輯 하나를 한만유에게 주면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당시 정조는 한만유에게 자신의 초집을 刪削 또는 수정·보완할 때 반드시 청색과 홍색으로 批點을 하고, 중요한 내용에는 附標를 붙이도록 지시하였다.<sup>45)</sup> 이는 정조가 한만유에게 자신의 초집을 교열·교감하도록 지시했음을 보여준다.

정조의 초집을 검토한 한만유는 “『주자대전』의 좋은 문장들이 선별되었으나 『절작통편』의 서간은 따로 초출된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조는 자신의 초집에 부족한 점이 많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밀하게 재정리해서 평소 공부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초계문신 교육에도 이용하려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초집을 다시 정리할 때 저술을 관련 인물별로 분류하고 목록에는 ‘與某人書 몇 편, 答某人書 몇 편’ 등으로 기록하겠다고 하였다.<sup>46)</sup> 그런데 주희의 저술을 인물별로 분류·정리하는 것은 『주서백선』의 편집 방식과 일치한다. 또 목록에 ‘與某人書’, ‘答某人書’ 등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은 초집의 대상이 서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를 볼 때 정조는 주희의 서간을 대상으로 선본을 편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만유 등에게 자신이 만든 기존 초집을 검토하도록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47)</sup>

정조는 선본의 제목을 ‘朱書課誦’으로 하겠으며, 분량은 2~3권 정도가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만유는 아무리 精選하더라도 4~5권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sup>48)</sup> 현재 전하는 『주서백선』이 6권인 것을

44)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5월 9일.

45)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7월 5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抄輯’의 용례를 보면, 원 자료에서 핵심 내용을 선별·초록한 것으로서 수정·보완 과정이 더 필요한 미완성 단계의 책자를 초집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편찬이 최종 완료된 ‘選本’과 구분하여 미완성 단계의 초록을 ‘抄輯’으로 지칭하였다.

46)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7월 5일.

47) 한편 이날 대화에서 정조는 한만유에게 崔光泰가 朱書를 잘 아는지를 물었고, 한만유는 최광태와 함께 비점과 교열을 해 보니 주서를 잘 아는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최광태가 한만유와 함께 정조의 초집을 검토·교열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48)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7월 5일.

볼 때, 분량 면에서도 당시 한만유 등이 산삭·교정한 결과물이 『주서백선』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주희의 편지에서 100편을 선별하겠다는거나 대본으로 어떤 책을 사용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정조는 1794년 11월 11일에 한만유에게 전교를 내려 주희의 서간 중 100편을 선별하여 선본을 편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49)</sup> 이 전교에서 정조는 內閣에 내려준 朱書抄輯은 자신이 20년 전에 편집한 것인데 지금 살펴보니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간략하게 精選해서 널리 보급하고자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sup>50)</sup> 이어 『주자서절요』에서 100편을 정선하겠다고 하면서,<sup>51)</sup> 한만유에게 오 늘부터 이 책의 篇目을 정하는 일에 착수하여 상세하게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조는 이틀 후인 11월 13일에 한만유·최광태·李始源 등과 『주서백선』 편찬의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주서백선』 편찬이 孔子가 시를 刪削해서 『詩經』을 편찬한 의의를 전범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조는 한 줄 정도의 짧은 편지라 하더라도 의미가 깊은 것이라면 『주서백선』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며, 또 『주서백선』의 신속한 간행을 위해 考閱·抄準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sup>52)</sup>

정조의 11월 11일 전교를 보면, 『주서백선』 편찬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는 이보다 앞선 11월 6일에 정조가 응제 성적이 우수한 성균관 유생들에게 『주서백선』을 하사한 기사가 실려 있다.<sup>53)</sup> 이는 11월 초에 이미 『주서백선』의 원고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조는 11월 15일에 李晩秀에게 “『주서백선』을 편찬한 후 속히 인출해야 하니 한편으로

49)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1월 11일.

50) 정조가 내각에 내려준, 20년 전에 만든 ‘주서초집’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주서백선』 편찬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정조가 한만유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던 초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51) 『홍재전서』 권23에 실린 『華城聖廟告由文』 중 李滉에게 올린 제문에서도 “朱書百選을 편찬할 때 朱書節要를 준칙으로 삼았네(選百朱書 節要是準)”이라고 하여 『주서백선』이 『주자서절요』에서 선별하여 편집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52)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1월 13일.

53)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1월 6일.

는 글을 쓰고 한편으로는 판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sup>54)</sup>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간행을 위한 精書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서백선』 편찬의 전교를 내리기 전에 이 책을 반사한 사례가 있고, 전교 후 4일 만에 정서와 인출 준비가 논의됐다는 것은 『주서백선』 편찬이 이미 시작됐으며 전교를 내릴 즈음에는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11월 11일의 전교는 편찬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서백선』의 편찬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주서백선』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언제일까? 문헌 기록에서는 그 시기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 7월 5일에 정조가 한만유에게 자신의 주서초집을 주면서 산삭·보완을 지시했을 당시 정조와 한만유가 언급한 내용들이 『주서백선』의 체재 및 내용과 거의 일치했던 것을 볼 때 1794년 7월부터 『주서백선』 편찬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7월부터 한만유 등이 정조가 정한 기준에 맞춰 『주서백선』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11월 초쯤 초고를 완성했고, 이를 다시 교열한 후 12월에 간행을 완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편찬·간행된 『주서백선』은 1794년 12월 25일에 공식 반사되었다. 이때 간행된 책은 총 536부였는데, 관료들에게 반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大內와 규장각 西庫, 華城 등에 분사되었다.<sup>55)</sup> 또 활자본을 경상·전라·평안 감영에 보내서 번각하고 판목을 보관하도록 했는데, 번각본 인출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볼 때, 1794년 12월에는 『주서백선』이 전국적으로 보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주서백선』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최초 간행 후 6년이 지난 1800년(정조 24) 4월로, 이때 정조는 『주서백선』을 四都和 八道, 300개 州縣에 1부씩 반사하여 校宮에서 소장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정조는 『주서백선』이 경상·전

54)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1월 15일.

55) 1794년의 『주서백선』 반사 내역을 보면 內入 139건, 頒賜次內入 33건, 西庫 250건, 수원 50건, 內閣·外奎章閣·外閣·成均館과 다섯 곳의 史庫에 각 1건씩 반사됐으며, 나머지 55건은 규장각 原任閣臣과 檢書官, 『주서백선』의 校正과 監印을 담당했던 관료들, 그리고 應製儒生(18인) 등에게 반사되었다[『일성록』 정조 18년(1794) 12월 25일].

라·평안 감영에서는 번각됐지만 서울에서는 번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내각에 명하여 『주서백선』을 번각하도록 했다.<sup>56)</sup> 이어 정조는 『주서백선』의 전국 반사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호서·관동·관북·四都: 내각에 소장된 活印本을 下送
- (2) 경기·해서: 내각에서 改板한 인출본이 완성되면 下送
- (3) 영남·호남·관서: 1794년 번각하여 각 감영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목으로 책을 인쇄해서 보급

위 내역 중에서 호서·관동·관북·四都로 하송된 내각 소장 활인본은 1794년 간행 당시 규장각 西庫로 보내졌던 250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와 해서로 하송된 '내각 개판 인출본'은 1800년에 정조가 내각에 지시하여 제작한 번각본이다.<sup>57)</sup> 이상의 과정을 통해 『주서백선』은 전국의 모든 군현에 1부씩 보급되어 지역 유생들의 주자학 학습 교재로 사용되었다. 『주서백선』의 전국적 보급은 이 책을 통해 주자학 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정조의 편찬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정조의 『朱書百選』 연구와 활용

『주서백선』이 공식 반사된 것은 1794년 12월 25일이지만, 연대기 자료에는 공식 반사 이전에 『주서백선』이 초계문신의 강학 교재로 논의되거나 유생들에게 반사된 사례들이 나타난다. 1794년 10월에 정조는 초계문신들에게 연말까지 강학할 교재로서 『근사록』과 『주서백선』 중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sup>58)</sup> 17명의 초계문신 중 13명이 『주서백선』을 택하였다.<sup>59)</sup> 하지만 당시 논의 내용을 보면 초계문신들이 『주서백선』이 어떤 책인지를 정확히 알고 선택

56) 『승정원일기』 정조 24년(1800) 4월 13일.

57) 정조의 지시에 따라 내각과 주자소에서는 『주서백선』 번각본을 제작하여 1800년 윤4월 26일에 정조에게 올렸고, 정조는 번각본 인출을 감인한 관원과 공장들에게 포상을 내렸다[『승정원일기』 정조 24년(1800) 윤4월 26일].

58) 『일성록』 정조 18년(1794) 10월 27일.

59) 『내각일력』 정조 18년(1794) 10월 27일.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정조는 1794년 11월 6일에 성균관 유생 應製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진사 趙學駿 등 5명에게 『주서백선』을 1건씩 하사했다.<sup>60)</sup>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주서백선』의 인출이 처음 언급된 것이 11월 15일이므로, 11월 6일에 반사된 『주서백선』은 필사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sup>61)</sup>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12월 8일과 16일에도 유생들에게 『주서백선』을 하사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sup>62)</sup> 이때는 인출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던 시기이므로 간본으로 반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조는 11월 23일 초계문신 應製에서 '내각이 『주서백선』을 간행하여 올리는 글'을 篋의 試題로 출제했는데,<sup>63)</sup> 이는 『주서백선』 간행이 당시 정조의 최대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1794년 12월 25일 『주서백선』이 공식 반사된 이후에는 초계문신과 유생들의 考講·應製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이들에게 『주서백선』을 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앞서 본 1800년의 전국적 반사 이전에 『주서백선』이 반사된 기록들을 보면 초계문신과 유생들에게 상으로 내린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또 고강·유계의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편찬 사업에 참여했던 유생들에게 포상으로 『주서백선』을 하사하기도 했는데, 1796년 9월에 『五經百選』의 校準 작

60)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1월 6일.

61) 1794년 11월 6일 이전에도 『주서백선』 간본이 언급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반사된 『주서백선』이 간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주서백선』 간본이 처음 언급된 것은 『일성록』 1794년 10월 27일 기사로, 이날 정조는 초계문신 중에 『주서백선』을 課講 교재로 자원한 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들이 본 『주서백선』이 간본인지 등본인지를 물었다. 이어 정조는 초계문신 중 일부가 내각에 있는 『주서백선』을 등서해서 보았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책에는 수정·보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일성록』 정조 18년(1794) 10월 27일]. 이를 볼 때 당시 설혹 간본이 제작됐더라도 시험 인쇄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량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크고, 수정·보완이 끝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정·보완을 완료한 후 정서한 필사 정본을 유생들에게 반사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62) 12월 8일에는 수원부 유생 중 應製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9명에게 『주서백선』 1건씩을 하사했고[『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2월 8일], 16일에는 日次儒生殿講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유생 중 4명에게 『주서백선』 1건씩을 하사했다[『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2월 16일].

63) 『일성록』 정조 18년(1794) 11월 23일.

업을 담당했던 유생들에게 『주서백선』을 하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sup>64)</sup>

정조가 초계문신과 유생들에게 『주서백선』을 하사한 것은 『주서백선』의 편찬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조는 『주서백선』의 편찬을 공식화한 전교에서 이 책을 간행·보급하여 ‘數文導化’, 즉 학문을 융성하게 하고 교화를 이끄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sup>65)</sup> 이는 『주서백선』 편찬에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조가 『주서백선』을 초계문신과 유생들에게 하사한 것에는 이들이 『주서백선』을 통해 주희 저술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주서백선』 편찬의 교육적 목적은 정조가 이 책을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들의 강학 자료로 사용한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조는 1797년 윤6월 29일에 전교를 내려서 초계문신의 8~9월 課講 교재로 『주서백선』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sup>66)</sup> 그리고 같은 해 10월 20일에 정조는 다시 명을 내려 8월부터 12월까지의 초계문신 응강에 『주서백선』 사용하도록 했다.<sup>67)</sup> 이와 같이 『주서백선』이 초계문신 교육의 교재로 사용된 것은 1794년 7월 정조가 『주서백선』 편찬을 시작할 때 “초계문신들에게 이 책을 課誦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목표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98년 11월에는 성균관에서 매달 3차례씩 여는 講會에서 『주서백선』을 강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조는 『주서백선』을 초계문신 및 성균관의 교재로 사용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주서백선』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교육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조는 『주서백선』이 간행된 다음 해인 1795년 10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49일 동안 『주서백선』을 완독하였다.<sup>68)</sup> 또 정조는 1797년 3월에는 초계문신 중 글씨를 잘 쓰는 이들을 선발해서 『주서백선』에 수록된 글에 대한 『기의』와 『차의』의 주석을 『주서백선』 책자에 옮겨 적도록 했는데, 상단 여백에는 『차의』의 내용을, 하단 여백에는 『기의』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sup>69)</sup> 이때 정조는

64)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9월 3일.

65) 『승정원일기』 정조 18년(1794) 11월 11일.

66) 『일성록』 정조 21년(1797) 윤6월 29일.

67) 『일성록』 정조 21년(1797) 10월 20일.

68) 『일성록』 정조 20년(1796) 12월 9일; 『승정원일기』 정조 23년(1799) 12월 8일.

‘지극히 精書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주석의 이용자가 정조 본인임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즉, 정조 자신이 『주서백선』을 읽을 때 관련 주석을 편리하게 참고하기 위해 『주서백선』 책자에 『기의』와 『차의』의 내용을 옮겨 적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주서백선』 연구는 『주서백선』 본문에 직접 구두를 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정조는 1797년 3월 9일에 『주서백선』·『팔자백선』·『사기영선』 등을 주자소에 내려주면서 자신이 정한 구두를 본문에 달게 했고 승지와 규장각 각신·초계문신 등에게 이를 교정하도록 했는데, 이 작업은 4월 4일에 완료되었다.<sup>70)</sup> 이는 3월 9일 이전에 정조가 직접 『주서백선』의 구두를 정했음을 보여준다. 또 정조는 승지와 각신들의 교정 작업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밀하게 교정할 것을 주문하였다.<sup>71)</sup>

정조는 『주서백선』 구두의 교정이 끝난 후 이를 바탕으로 懸吐 작업을 추진하였다. 1797년 5월 4일에 정조는 한만유에게 『주서백선』 2권을 내려주고 초계문신 曹錫中·洪奭周 등과 함께 상세하게 토를 달고 마음을 다해 考準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sup>72)</sup> 이 기사만 보면 정조가 한만유 등에게 『주서백선』 현토 작업을 일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서백선』의 구두를 정조가 직접 정한 것을 고려하면 한만유 등의 현토 작업은 정조의 구두에 기반한 현토, 즉 정조의 해석이 반영된 현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득록』에 실린 이만수의 기록 중 정조가 각신들과 함께 『주서백선』 등의 책에 토를 붙였다고 한 내용은 『주서백선』 현토 작업에 정조가 적극적으로 간여했던 정황을 잘 보여준다.<sup>73)</sup> 또 『주서백선』을 초계문신 課講 교재로 사용할 때 ‘御定吐’를 엄격히 지켜

69) 『승정원일기』 정조 21년(1797) 3월 9일.

70) 『일성록』 정조 21년(1797) 4월 4일.

71) 1797년 3월 26일에 정조는 우부승지 李肇源에게 『주서백선』 校準을 몇 차례 시행했는지 물었고, 이조원은 4번 실시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조는 4번에 그치지 말고 더욱 정밀하고 상세하게 교준할 것을 지시하였다[『승정원일기』 정조 21년(1797) 3월 26일].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서백선』의 구두를 교정했다는 기사와 연결해 볼 때 정조와 이조원의 대화에 등장하는 ‘교준’은 『주서백선』 구두의 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72) 『승정원일기』 정조 21년(1797) 5월 4일.

73) 『홍재전서』 권164, 『日得錄』 4, 檢校直提學臣李晚秀丁巳錄.

서 강하도록 했는데,<sup>74)</sup> 여기에서 ‘御定吐’라는 표현은 『주서백선』의 토가 정조의 해석을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정조는 이상과 같은 작업들을 통해 주석과 현토를 갖춘 『주서백선』을 마련하였다. 즉 『주서백선』을 초계문신이나 유생 강학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다. 정조가 『주서백선』의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직접 주도한 것은 ‘君師’인 자신에게 초계문신 및 유생들을 주자학의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의 기반 위에서 1797년 하반기부터 『주서백선』은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들의 課講 교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에 대한 『주서백선』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정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00년에 『주서백선』을 추가로 번각·간행하여 4都 8道와 300여 州縣에 보급한 것에는 바로 이런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할 수 있다.

### 3) 『朱書百選』 내용의 특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서백선』은 정조가 주희의 서간 중에서 가장 긴요하다고 판단한 100편을 선별하여 정리한 책이다. 『주서백선』에 실린 서간에는 南宋 代 政局에 대한 주희의 인식과 出處觀, 학문관, 역사 인식, 주자학의 주요 이론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주서백선』에 실린 글들은 주희의 저술이지만 이를 선별한 이는 정조이므로, 『주서백선』에는 주희뿐만 아니라 정조의 학문관과 정치관도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조가 『주서백선』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불교는 물론 같은 유학이라도 주자학과 결을 달리하는 蘇軾·陳亮·陸九淵 등의 학문에 대해 강력한 비판 의식을 피력하였다. 특히 정조는 蘇軾의 학문을 비판한 주희의 서간을 『주서백선』에 대거 수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尙書 汪應辰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희는 蘇軾의 학문이 불교를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up>75)</sup> 또 불교와 노장의 글을

74) 『일성록』 정조 21년(1797) 10월 20일.

75) 『주서백선』 권1, 「答汪尙書」.

인용하여 문장을 짓는 蘇軾의 학문을 비판하면서 소식의 문장에 경도되어 있는 汪應辰의 태도를 경계하였다.<sup>76)</sup> 呂祖謙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희는 여조검이 소식의 학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으며,<sup>77)</sup> 胡寔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소식 학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소식은 心術이 바르지 못하다고 극언하였다.<sup>78)</sup>

한편 주희는 진량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고조와 당 태종을 높이 평가하는 진량의 공리주의적 태도를 비판했으며,<sup>79)</sup> 육구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周敦頤·二程 등의 학설을 연구하지 않고 그들의 결점과 오류만 찾아내려고 하는 陸九淵의 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였다.<sup>80)</sup> 또 『與劉子澄』에서는 呂祖謙의 후학들이 史學을 중시한 여조검의 학문을 호도하여 霸道와 功利를 추구하는 것과 陸九淵의 학문에 禪學의 기미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sup>81)</sup>

정조가 불교와 蘇軾·陳亮·陸九淵 등의 학문을 비판한 편지들을 『주서백선』에 많이 수록한 것에는 '正學의 수호'라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의 선비들은 明·淸의 낮고 구슬픈 학문에 고질적인 병통이 있지 않으면 功습이나 應酬 문자에 빠져 있을 뿐, 제대로 朱子書를 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장차 이 책(『주서백선』)으로 한 시대를 크게 변화시키는 토대를 삼으려 한다.<sup>82)</sup>

앞서 보았듯이 정조는 주희의 저술을 경서와 동등하게 인식했고, 이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여 여러 선본들을 남겼다. 그런 정조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陽明學이나 考證學, 稗官小品體의 문장들은 정확을 어지럽히는

76) 『주서백선』 권1, 『與汪尙書』.

77) 『주서백선』 권4, 『答呂伯恭-祖謙』.

78) 『주서백선』 권5, 『答胡廣仲-寔』.

79) 『주서백선』 권3, 『答陳同父』.

80) 『주서백선』 권4, 『答陸子靜-九淵』.

81) 『주서백선』 권4, 『與劉子澄』.

82) 『홍재전서』 권163, 『日得錄』 3, 文學 3, “今之爲士者 不膏肓於明清嚆殺之學 則卽乾沒於功令應副之文 未聞有能讀朱子書者 予將以此編爲丕變一世之權輿.”

‘邪學’이었다. 이에 정조는 『주서백선』에 ‘이단’ 학문을 강력히 비판했던 주희의 편지를 수록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조선의 학자들이 邪學에서 벗어나 정학인 주자학에 전념하도록 이끌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군자와 소인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는 봉당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군자·소인의 구분에 관한 내용은 주희가 丞相 留正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주희는 留正에게 君子와 小人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군자의 黨을 조정에 진출시키고 소인의 黨을 물리칠 것과 유정 본인도 군자당에 들어가며 군주도 군자당에 들어가도록 보필할 것을 촉구했다.<sup>83)</sup> 또, 元祐 연간의 오류는 군자와 소인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했으며,<sup>84)</sup> 유정이 ‘공평’을 내세워 군자·소인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등용하고자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調停說에 오도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sup>85)</sup>

정조가 이 편지들을 『주서백선』에 수록했다는 것은 그가 주희의 朋黨論을 긍정했음을 의미한다. 탕평을 추진하면서 봉당을 타파하려 했던 정조가 주희의 봉당론을 긍정했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조의 『皇極編』 서문은 그가 주희의 봉당론을 긍정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옛날에는 군자는 군자끼리 黨을 만들고 소인은 소인끼리 黨을 만들었다. 그래서 봉당을 타파하고자 하면 군자는 반드시 해를 입었고 소인은 반드시 뜻을 이루었다. 이에 歐陽脩는 「朋黨論」을 지어 임금이 봉당을 배척하는 것을 경계했고, 주자는 范純仁의 「調停說」을 비판했다. 이것이 옛날의 봉당을 깨뜨릴 수 없는 이유다. 지금의 봉당은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주장에 따라 갈라져 있다. 그래서 저쪽에도 옳고 그름이 있고 이쪽에도 옳고 그름이 있으며, 저쪽에도 군자·소인이 함께 있고 이쪽에도 군자·소인이 함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 黨을 타파한 후에야 군자끼리 모이게 할 수 있고 소인을 교화시킬 수 있다.<sup>86)</sup>

83) 『주서백선』 권3, 「與留丞相-正」(一).

84) 『주서백선』 권3, 「與留丞相-正」(二).

85) 『주서백선』 권3, 「與留丞相-正」(三).

86) 『홍제전서』 권8, 序引 1, 「皇極編序」, “古則君子與君子爲黨 小人與小人爲黨 欲破其黨 則君子必受病 而小人必得志 故歐陽脩著朋黨論 以爲人主惡黨者之戒 而范純仁調停之說 朱子非之 此其所以不可破也. 今則其爲黨也 非君子小人也 特歧於議耳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彼亦有君子有小人 此亦有君子有小人 必破其黨然後 君子可萃 而小人可化.”

이 글에서 정조는 옛날의 봉당은 깨뜨릴 수 없지만 지금의 봉당은 깨뜨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봉당을 깨뜨린 후에야 군자끼리 모이는 옛날의 봉당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옛날의 봉당이 바로 주희의 봉당론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정조가 추진한 탕평은 지금의 봉당을 깨뜨리고 옛날의 봉당, 곧 '군자당'을 회복하는 것으로 주희가 주장한 봉당론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누가 주도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주희의 봉당론이 신하들의 주도 하에 군자당이 만들어지고 군주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면, 정조의 탕평은 각 당의 군자들이 黨色의 구분 없이 군주의 영도 하에 하나로 결집하는 것, 즉 '군주 주도의 군자당'을 결성하는 것이었다. "오직 황극만이 봉당의 설을 타파할 수 있다."<sup>87)</sup>는 정조의 언설은 군자당 결성의 주도자가 군주, 즉 정조 자신이라는 점을 역설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군주를 바르게 보필하는 것을 대신과 재상의 책무로 강조하였다. 이런 내용은 「與陳侍郎-俊卿」·「答張敬夫-栻」·「與臺端」 등 주희가 당시 조정 관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주 등장한다. 「與陳侍郎-俊卿」에서는 현 시국의 문제점인 獨斷·講和·國是의 세 가지 설을 타파할 방도는 황제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陳俊卿이 군주를 바르게 보필하는데 힘쓸 것을 촉구하였다.<sup>88)</sup> 또 「答張敬夫-栻」에서는 '천하의 일의 큰 근본은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sup>89)</sup> 「與臺端」에서는 군주가 사악한 소인의 무리를 제거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잘 보필할 것을 촉구했다.<sup>90)</sup>

정조가 이 같은 내용들을 『주서백선』에 수록한 것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와 신하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주희는 황제와 재상의 관계에서 재상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황제를 이끌어 가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정조가 이와 같은 주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君師를 표방했던 정조의 정치관을 고려한다면,

87) 위의 글, “此編卽朋黨分爭之說也 奚以名皇極也. 惟皇極 可以破此說故名也.”

88) 『주서백선』 권1, 「與陳侍郎-俊卿」.

89) 『주서백선』 권2, 「答張敬夫-栻」.

90) 『주서백선』 권2, 「與臺端」.

정조의 입장은 군주가 바른 정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신하들이 뒤에서 잘 보좌해야 한다는 ‘조연의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91)</sup> 즉, 앞서 본 봉당론과 마찬가지로 정조는 주희의 글을 통해 군신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 내용은 주희의 본지와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주 보필’의 책무와 관련하여 신하들이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을 강조한 편지들이 눈에 띈다. 『答張敬夫-栻』에서는 대신·재상들이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스스로 嚴恭寅畏에 힘쓰고 聲色貨利를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92)</sup> 또, 『答陳同父』에서는 “修身과 事君은 두 가지 일이 아니다.”<sup>93)</sup> 라고 하여 군주를 바르게 보필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의 修身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與趙尙書-汝愚』에서도 군주가 천하의 일에 항상 유념하도록 권면할 것과 이를 위해 趙汝愚가 먼저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sup>94)</sup>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정조가 명목상 ‘군주 보필’의 책무를 앞세우면서 그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하들의 수신을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95)</sup>

91) 초계문신 金近淳이 주희의 『與陳侍郎書』에 있는 “獨斷이란 말이 올라가자 군주의 뜻이 위에서 교만해졌다.”라는 구절을 강할 때 唐 德宗과 宋 神宗의 사례를 들며 국왕의 독단을 경계하자 정조는 “어찌 일을 도모할 때는 널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결단은 홀로 내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衆論을 헤아려 中道를 취했던 舜의 사례를 들며 최종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홍재전서』 제130권, 『故寃』 2, 朱子大全 1). 이는 정조가 군신관계 및 정책 결정에서 국왕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2) 『주서백선』 권2, 『答張敬夫-栻』.

93) 『주서백선』 권3, 『答陳同父』.

94) 『주서백선』 권3, 『與趙尙書-汝愚』.

95) 초계문신 金近淳이 『答陳同甫書』의 “모름지기 먼저 나 자신이 좋아야 黨類 또한 좋게 되고, 따라서 내 임금이 좋고 천하 국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구절을 강하면서 정조에게 “선을 좋아하는 도량을 넓히기에 더욱 힘쓰시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다 함께 크게 좋은 영역[大好]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촉구하자, 정조는 “내가 먼저 ‘자신이 좋아진다[吾身好]’는 구절을 三字符로 삼도록 하라.”라고 하여 국왕에게 요구하기 앞서 신하들이 먼저 수신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홍재전서』 제130권, 『故寃』 2, 朱子大全 1).

## 4. 맺음말

이상에서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朱書百選』의 편찬 과정 및 목적 등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본문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정조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朱子大全』·『朱子語類』 등 朱熹 저술에 대한 학습에 매진하면서 주자학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또 조선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 전통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정조는 조선의 주자학 연구서 중에서 李滉의 『朱子書節要』와 『朱子書節要記疑』, 宋時烈的 『節酌通編』과 『朱子大全節疑』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평가했으며, 그 외 다른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 정조는 자신이 구상한 '朱子全書' 편찬에 조선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정조가 조선의 주자학 연구 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정조의 주자학 연구는 10대 중반이었던 1767년부터 시작된 『주자대전』·『주자어류』 연구에서 그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정조는 20대 초반부터 자신의 주자학 연구 성과를 저술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조의 주자학 저술은 대부분 『주자대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초록한 '選本'으로, 이는 조선의 주자학 연구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동시에 그의 궁극적 목표인 '주자전서' 편찬을 위한 선행 연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정조의 주회 저술 선본들은 정조 자신의 주자학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따라서 대부분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남았다. 반면, 1794년에 편찬된 『주서백선』은 간행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정조는 거질의 저술에 대한 선본을 편찬·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학자들의 학습을 독려하고 학문을 진흥시키고자 했는데, 주자학에서는 『주서백선』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책이었다. 즉, 『주서백선』은 학자들에게 주회 저술의 핵심 내용을 보급하고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간행이 추진됐다고 할 수 있다.

『주서백선』은 정조가 주회의 서간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 100편을 선별하여 편집한 선본으로, 『주자서절요』를 저본으로 사용했다. 정조는 『주서백선』을 초계

문신과 유생들의 강학 교재로 사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직접 『주서백선』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구두와 懸吐 등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1800년에는 이 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학자들의 『주서백선』 학습을 독려했다.

『주서백선』에 실린 글은 주희의 저술이지만 이를 선별한 이는 정조이므로, 『주서백선』에는 주희뿐만 아니라 정조의 학문관과 정치관도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서백선』을 통해 정조가 강조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正學인 주자학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둘째, 주희의 朋黨論을 긍정했는데, 이는 정조가 추진한 탕평이 ‘君子黨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주희 봉당론과 맥을 같이 함을 보여준다. 다만 누가 주도하는가에 있어 주희와 차이를 보이는데, 군주 주도의 군자당 건설이 정조 탕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군주를 바른 길로 보필하는 것을 대신·재상의 책무로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대신·재상의 修身을 요구하였다.

주제어 : 正祖, 『朱書百選』, 『朱子大全』, 選本, 君子黨

투고일(2020. 2. 3), 심사시작일(2020. 2. 13), 심사완료일(2020. 2. 27)

## 〈Abstract〉

Jeongjo's study on the writings of Chu Hsi and the compilation of  
*Juseobaekseon*(朱書百選)

Kang, Moonshik \*

Jeongjo evaluated the writings of Yi Hwang and Song Si Yeol as the most important core of the study on the writings of Chu Hsi in Joseon dynasty. And he also had a relatively accurate understanding of other scholars' research, about the writings of Chu Hsi. Jeongjo had a plan to make a compilation of *Jujajeonsoe*(朱子全書) and include the research results of Joseon scholars in *Jujajeonsoe*. This shows that Jeongjo highly evaluated the level of Joseon scholars' research on the writings of Chu Hsi.

Jeongjo's research on the writings of Chu Hsi was began in 1767 when he was in his mid teens. At that time he studied *Jujadaejeon*(朱子大全), the collection of Chu Hsi's works. And from his twenties, Jeongjo compiled several anthologies of the writings of Chu Hsi. His study of the writings of Chu Hsi since 1767 provided the basis for the compilation of the anthologies.

Jeongjo selected 100 of Chu Hsi's most important letters from *Jujaseojeolyo*(朱子書節要) written by Yi Hwang and compiled an anthology named *Juseobaekseon*(朱書百選). Jeongjo wanted to use *Juseobaekseon* as a textbook for Chogye-munshin and students of Confucianism. For this purpose he confirmed the oral formula graph of *Juseobaekseon*. And in 1800 Jeongjo distributed this book throughout the country for encouraging scholars to learn *Juseobaekseon*.

We can sum up three points that Jeongjo emphasized through *Juseobaekseon*. First Jeongjo criticized the problems of other learnings excluded Neo-Confucianism for protecting Neo-Confucianism as a orthodox learning. Second, Jeongjo agreed to Chu Hsi's theory of political faction. It means that Jeongjo's theory of impartiality have something to do with Chu Hsi's theory of political faction as the construction of the

---

\* Senior Curat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ty of Kunja. Third, He emphasized the assisting of King to the right way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Chancellor.

**Key Words** : Jeongjo, *Juseobaekseon*(朱書百選), *Jujadaejeon*(朱子大全), anthology of the writings of Chu Hsi, the party of Kunja